

의안처리 정례회 2회(62일), 임시회 7회(68일) 등 총 9회 13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257건, 예산 및 결산 12건, 동의안 45건 기타 안건 42건 등 모두 35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심의 본예산 1회, 추경 3회에 걸쳐 총 4차례 심의했으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 1조2천34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6천945억원을 확정하는 등 총 1조9천285억원을 심의·의결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가 있다.

왕성한 입법활동 2014년 1년간 조례안 122건을 처리했고,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각각 52건과 11건이며 위원회 대안은 1건이다. 처리된 조례안에는 총 58건의 의원발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당 3.8건의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처리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의회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맞이하는 광역의회의 기틀을 다지고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 2회에 걸친 전체 의원 의정연수를 통해 입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정실무능력과 의정수행역량을 강화해 왔다.

신뢰받는 청렴의회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시·도의회 부문 2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의회는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한 바 있으며 의원들이 회의나 연찬회를 통해 청렴교육을 받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장중심 의정활동 2월 2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조치원 죽림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 4월 7일에는 서천군 어머니 복지마을과 청소년 수련관을 방문해 어르신과 청소년의 종합 복지서비스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3월 12일에 강원도 횡성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장으로부터 지역농산물 푸드인증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세종시 학교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3월 31일에는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 임상전 의장과 윤형권 부의장, 박영송, 김정봉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의회 신청사의 조속한 착공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7월 2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해 의정교류 활성화 및 세종시의회 청사 이전을 앞두고 사무공간 배치 및 활용방안 등을 건학했다. 또한, 7월 31일에는 임상전 의장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해 시설배치와 개청행사 준비상황 등에 대해 벤치마킹했다.

10월 5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12명이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종촌종합복지센터 및 은하수공원을 방문해 직원채용문제,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10월 28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집행부 직원 18명이 합동으로 세종소방서를 방문해 세종소방서 개청 준비상황 청취 및 건물내부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고준일 위원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인력배치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세종시의회에서는 배우며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서금택 의원이 대표로 있는 조치원읍 강원연탄 운영대책 연구모임, 윤형권 의원이 대표로 있는 균형발전 연구모임, 정준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환경교육 연구모임 등 3개 연구모임을 결성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역현안 관련 의정활동 전개 3월 13일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중단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 집무실의 세종시 설치, 신설된 정부조직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상전 의장은 6월 22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세종세무서' 조기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세종시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인구가 두배 이상 증가해 20만 명이 넘었으며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음에도 왕복 22~70km 거리의 공주세무서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세종세무서 조기신설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22일에는 세종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공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이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명시한 세종시 이전제외 6개 부서 이외에는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함에도 정부의 이전계획 변경 안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500만 충청인과 20만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세종시의회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해 공공시설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경기도



道花 : 개나리 **道鳥** : 비둘기
道木 : 은행나무 **캐릭터** : 불루링
도청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도지사 : 남경필(南景弼)

개 관

연혁 1967년 서울특별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됐으며, 1971년 광주군의 4개 면을 중심으로 성남출장소가 설치된 이후 1973년 안양읍이 안양시, 소사읍이 부천시,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각각 승격됨으로써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6시, 18군으로 됐다.

1981년에는 인구 증가로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 분리됐으며 양주군 동두천읍이 동두천시,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 시

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각각 승격됐다.

1982년 시흥군 과천면에서 과천출장소가 설치되고 1986년에 구리읍, 평택읍, 과천출장소, 반월출장소가 각각 구리시, 평택시, 과천시, 인산시로 승격됨으로써 경기도는 12시 19군을 관할하게 됐다.

1989년 5월 성남시에 수정구와 중원구가 설치됐다. 1991년 9월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설치됐던 분당출장소를 분당구로, 1992년 2월에는 고양군 전체가 고양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 행정구역은 19시, 17군으로 됐다.

1995년 1월 도·농복합 형태의 시·군 통합이 시작되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해 남양주시가 설치됐으며 1995년 3월에는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 대부면을 제외한 웅진군이 인천광역시에서 편입됐다.

1995년 5월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등 3개 시·군을 통합해 평택시를 설치함으로써 경기도는 18시, 13군이 됐다.

1996년 3월 용인군, 파주군, 이천군이 각각 시로 승격되어

21시 10군이 됐으며, 일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고양시에 1996년 3월 덕양구와 일산구가 설치됐다.

1998년 4월 안성군과 김포군이 각각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 2001년 3월 화성군과 광주군 역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는 25시, 6군이 됐다.

이어 2002년 1월 1일 안산시에 단원구와 상록구가 설치되고 2003년 10월 19일 포천군과 양주군이 각각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됐으며, 2003년 11월 24일 수원시에 영통구가 설치됐다.

2005년 4월 8일에는 고양시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됐으며, 2005년 10월 31일 용인시에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신설됐다. 2013년 9월 23일에는 여주군이 시로 승격됐다.

면적·행정구역·인구 총면적은 1만172㎢다. 행정구역은 28시(구 20), 3군, 33읍, 108면, 413동을 두고 있다. 총인구는 2015년 말 현재 488만5천12가구에 1천289만2천271명(내국인 1천252만2천606명, 외국인 36만9천665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면적·가구·인구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	가구	인구(명)	행정구역								통	리	반
				시	군	구	읍·면·동			출장소				
							읍	면	동	시·군	읍·면			
합 계	10,172.40	4,885,012	12,892,271	28	3	20	33	108(2)	413	5	1	11,746	4,040	90,414
경기남부	5,906.71	3,589,771	9,231,544	20	1	17	19	67	321	3	-	9,268	2,855	65,868
수원시	121.05	463,154	1,184,624	1		4			40			1,492		6,930
성남시	141.72	390,968	971,424	1		3			48			1,296		7,744
용인시	591.38	354,267	975,746	1		3	1	6	24			810	309	7,795
부천시	53.44	327,617	848,987	1		3			36			688		4,938
안산시	149.40	281,865	697,885	1		2			25			1,228		6,002
안양시	58.46	223,779	597,789	1		2			31			557		3,223
화성시	689.58	226,316	596,525	1			4	10	9	1		194	529	3,434
평택시	457.47	189,122	460,532	1			3	6	13	2		328	411	3,203
시흥시	135.06	157,755	398,256	1					17			405		2,512
광명시	38.50	128,208	344,978	1					18			488		3,116
김포시	276.64	133,231	349,990	1			3	3	6			211	233	3,173
군포시	36.46	106,771	287,519	1					11			335		2,316
광주시	430.99	124,114	312,579	1			3	4	3			76	169	1,432
이천시	461.31	81,228	204,935	1			2	8	4			101	299	1,955
오산시	42.77	81,033	206,828	1					6			287		1,908
안성시	553.44	74,265	180,199	1			1	11	3			58	415	1,474
의왕시	53.97	58,505	157,740	1					6			172		897
하남시	93.04	66,797	166,713	1					12			316		1,295
여주시	608.37	47,117	111,033	1			1	8	3			70	225	992
양평군	877.81	48,629	108,316		1		1	11					265	793
과천시	35.85	25,030	68,946	1					6			156		733
경기북부	4,265.69	1,295,241	3,291,062	8	2	3	14	41(2)	92	2	1	2,478	1,185	24,549
고양시	268.05	393,093	1,027,546	1		3			39			929		5,793
남양주시	458.05	246,353	653,454	1			5	4	7	1	1	194	368	4,828
의정부시	81.54	172,392	433,937	1					15			610		3,509
파주시	672.66	171,753	423,321	1			4	9(2)	7	1		146	244	3,261
양주시	310.32	80,109	205,184	1			1	4	6			141	100	1,966
구리시	33.31	71,602	186,721	1					8			273		1,728
포천시	826.71	67,913	155,192	1			1	11	2			34	251	1,054
등두천시	95.66	42,094	97,974	1					8			151		1,199
가평군	843.56	28,551	62,008		1		1	5					126	595
연천군	675.83	21,381	45,725		1		2	8					96	616

재 정

2016년도 경기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조4천813억원, 특별회계 3조4천801억원(공기업 특별회계 2조3천205억원, 기타 특별회계 1조1천596억원)을 포함한 18조9천615억원이다. 31개 시·군의 총 예산은 28조1천631억원이다.

2016년도 경기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합 계	16,640,979,751	15,481,362,557	1,159,617,194
지방세	8,318,600,000	8,318,600,000	-
보통세	6,385,800,000	6,385,800,000	-
목적세	1,918,000,000	1,918,000,000	-
2014년도 수입	14,800,000	14,800,000	-
세외수입	655,405,033	495,531,707	159,873,326
경상적 세외수입	70,773,223	69,453,223	1,320,000
임시적 세외수입	584,631,810	426,078,484	158,553,326
지방교부세	281,661,000	281,661,000	-
국고보조금 등	6,690,451,673	5,971,875,850	718,575,82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94,862,045	413,694,000	281,168,045

2016년도 경기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합 계	16,731,979,751	15,572,362,557	1,159,617,194
일반공공행정	3,435,487,331	3,435,487,331	-
공공질서 및 안전	339,870,725	339,870,725	-
교육	2,253,206,152	2,110,944,152	142,262,000
문화 및 관광	337,413,993	337,413,993	-
환경보호	632,062,727	630,875,736	1,186,991
사회복지	5,947,975,389	5,055,194,547	892,780,842
보건	255,176,523	255,176,523	-
농림해양수산	484,910,176	484,910,176	-
산업·중소기업	170,392,756	170,392,756	-
수송 및 교통	1,174,066,208	1,071,890,208	102,176,000
국도 및 지역개발	620,244,266	602,395,914	17,848,352
과학기술	43,716,700	43,716,700	-
예비비	148,592,529	148,592,529	-
기타	888,864,276	885,501,267	3,363,009

중점 추진사업

정책오디션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오디션이 진행됐다. 44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넥스트 '경기창조오디션'에는 51개 사업이 접수돼 광명시 광명

동굴 사업이 100억원의 교부금을 받았다.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컨설팅과 사업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 창조오디션', 차세대 게임콘텐츠발굴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게임 창조 오디션',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슈퍼먼 창조오디션' 등도 호평을 받았다.

일자리창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청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행정인턴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497명의 인턴을 채용,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주요 도정을 체험하도록 했다. 푸드트럭과 관련해 최고가 낙찰방식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익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1인당 최대 4천만 원까지 1% 저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책도 마련했다.

생활임금 도입·공정경제와 신설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안이 시행돼 도 소속 직접고용근로자 가운데 40명이 생활임금을 받았다.

생활임금 시급은 6천810원에서 올해 7천30원으로 오르고 수혜 근로자도 도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751명으로 늘어났다.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경제과'를 신설했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도 개소했다.

경기북부균형발전 400억원을 지원하는 북동부경제특화발전사업에 17개 시·군이 20개 사업을 신청했고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프로젝트가 대상의 영예를 안아 100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았다. 포천을 K-디자인빌리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했다.

전문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작공간, 아시아 젊은 디자이너들의 미래를 결합하는 융복합공간, 디자인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등이 조성된다.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을 고시하고 2018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평화누리길을 경기북부의 대표 트래킹코스라 만들기로 하고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주요 성과 및 공약추진 상황

여야연정(聯政)이 시·군연정, 광역지자체 간 연정으로 확대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한 테이블에 앉아 갈등을 풀려는 시도 자체만으로 신선한 충격을 줬다. 수원-용인 간 경계 구역 조정, 동두천 약취해소 등이 합의에 이르렀고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해묵은 갈등인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는 도와 용인·안성·평택시가 합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도·제주도와도 상생협약을 맺었다.

강원도와는 DMZ를 활용한 관광상품개발 등을, 제주도와는 농산물유통판매 등에 합의했다. 경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에 예산편성자율권을 부여했고 예산심의를 5월로 앞당겼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민간과 소통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방역 모델을 정립했다. 지자체와 의료계가 협업해 메르스에 공동 대응하는 모델을 갖춘 곳은 경기도가 유일했다.

수도권 전세난 심화 등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 정책을 시작했다. 도유지와 사유지 등 공유지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한다.

따복택시와 따복버스는 대중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정책이다. 따복택시는 양평·가평·이천·포천·여주·안성 등 6개 시·군 73개 마을에 368대가 운행 중이다. 이용요금은 1인당 100원에서 1천500원이다. 따복버스는 가평·김포·시흥·파주·포천 등 5개 시·군 6개 노선 13대를 운행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문화 확산을 위해 세계적인 빅데이터 관련 석학과 기업인이 참가하는 2015빅포럼을 개최했다. 남경필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한 포털서비스 '경기데이터드림'도 호응을 얻고 있다.

경제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662만6천 명이며 이중 취업자는 636만4천 명이다. 고용률은 61.4%, 실업률은 3.9%이다. 산업별 취업인구는 636만4천 명 중 농림어업 종사자 11만7천 명, 광공업 및 제조업 종사자 127만7천 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 종사자 497만 명이다.

공업 및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4개소, 일반산업단지 131개소, 농공단지 1개소이고 2만7천5개 업체가 입주, 50만8천369명이 근무하고 있다.

농업 농가는 12만9천 호, 농가인구는 37만4천872명이며, 경지면적은 17만6천ha(논 9만6천696ha, 밭 7만9천332ha)이며, 호당 면적은 1.35ha이다. 사육가축은 한·육우 26만4천937마리, 젖소 16만5천29마리, 돼지 176만1천424마리, 닭 3천575만 699마리이다.

어가 어가는 850호, 어가 인구는 2천295명, 어선은 2천39척, 어업생산량은 2만1천6270t이다.

산림 총 산림면적은 52만6천985ha로 국유림 9만6천738ha, 도유림 3만622ha, 시·군유림 1만721ha, 사유림 38만8천 904ha다.

사회

주택 일반가구 수는 436만 호, 주택 수는 426만 호로 주택 보급률은 97.8%다.

교통 등록차량은 469만4천527대이다. 이중 승용차 372만3천310대, 승합차 24만2천118대, 화물자동차 71만7천59

대, 특수자동차 12만400대다. 차량 주차공간은 29만5천여 곳의 484만3천여 대분으로 등록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103.1%이다.

도로 및 교량·터널 총연장은 2만7천600개 노선에 1만2천 859km로 포장률은 89.9%다. 고속국도 16개 노선 670km, 국도 18개 노선 1천595km, 지방도 55개 노선 2천741km, 시·군도 2만 2천918개 노선 7천853km이다. 교량은 4천7개소, 터널은 98개 소이며, 하천은 516개소 3천490km(개수율 57%)이다.

상·하수도 급수인구 인구 1천270만9천 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7.6%, 1인당 1일 급수량은 318ℓ, 총 공급량은 1일 395만2천이다. 하수도 시설연장은 2만5천173km, 하수도 보급률은 93.7%이다.

환경 생활자원회수센터(공공재활용 선별장) 30개소 1천 411t/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27개소 2천176t/일, 폐기물 소각시설 26개소 5천114t/일, 폐기물 매립시설 9개소 매립용량 836만㎡, 사용종료 매립지 112개소 203만㎡이다.

후생 종합병원 57, 병원 291, 요양병원 280, 의원 6천164, 치과병원 34, 치과의원 3천696, 조산원 12, 한방병원 39, 한의원 2천774, 보건소 44, 보건지소 123, 보건진료소 161개소이다. 의약품 판매소는 약국 4천441, 도매업 474, 한약업사 109개소이다.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8만9천400명, 노령인구 수급자는 78만4천96명, 등록장애인은 50만6천464명, 거주(생활)시설은 총 2천71개소, 시설별로는 아동복지시설 150개소, 노인복지시설 1천59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310개소, 노숙인 생활 시설 14개소이다.

교육·문화

교육 학교시설은 4천775개교로 유치원 2천188개 원, 초등학교 1천213개교, 중학교 613개교, 고등학교 460개교, 특수·기타 학교 48개교, 전문대학 32개교, 교육대학 1개교, 대학 42개교, 대학원 178개교이다.

문화재 1천2점으로 국가지정 274점, 도 지정 665점, 등록문화재 63점이 있다.

문화시설 전시시설은 박물관 125개소, 미술관 48개소, 문화원 31개소이고, 공연시설은 문예회관 및 공공 공연장 119개소, 민간 공연장 24개소, 영화관 94곳(스크린 수 554)이다.

관광 관광사업체는 총 3천278개소로 여행업 1천975개소, 관광숙박업 128개소, 관광객 이용시설업 183개소, 유원시설업 266개소, 관광객 편의시설업 700개소, 국제회의업 26개소가 있다.

체육시설 2014년 12월 말 기준 공공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42곳, 실내체육관 196곳, 테니스장 142곳, 수영장 69곳, 사격장 1곳 등 총 3천557개소다.

일반체육시설 중 등록시설은 골프장 150곳, 스키장 5곳, 자동차경주장 1곳이며, 신고시설은 빙상장 5곳, 승마장 55곳, 종합체육시설 67곳, 수영장 182곳, 체육도장 3천697곳, 골프연습장 2천340곳, 당구장 5천398곳, 썰매장 36곳 등이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장〉 윤화섭

〈부의장〉 김유임, 천동현

〈정당별 의석〉 더불어민주당 69석, 새누리당 52석, 무소속 1석이다.

운영·의안 처리 제9대 도의회는 2015년 한해 2차례 정례회와 10차례 임시회를 합해 140일간의 회기를 운영해 566건의 안건을 접수, 519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조례 305건(의원발의 230건, 위원회 제안 18건, 도지사 제출 41건, 교육감 제출 16건), 규칙 5건, 승인·동의안 39건, 중요동의 24건, 결의안 40건, 건의안 45건, 예산·결산안 16건, 의견청취안 1건, 재의 2건, 청원 8건 등이다.

주요 의정활동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도내 31개 전 시·군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했다. 지역상담소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돼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고충민원 수렴,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한다. 또 주민의 건의 및 민원사항을 접수,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한다. 상담소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는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감염병 예방 조례'를 의결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규칙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관리본부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 관리와 강제처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관리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통과도 전국 첫 사례다. 조례는 도지사가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주요시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일자리 개발 지원단 운영,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개최, 도민 의견수렴 창구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 월 70만원(기존 60만원 지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0만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누리과정 갈등…연정 자율예산 편성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새누리당 및 집행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상태와 보육대란을 맞았다.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고, 도의회가 4개월분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며 일시 봉합됐다.


도세 보통세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2 이내에서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자금 융자 등에 쓰는 내용의 주거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안전심지대로 지정,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파 안전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놓고 도 의회와 도, 도교육청이 마찰을 빚었다.

예산연정에 따라 7월 1차 추경과 9월 2차 추경 심의과정에서 각각 100억원과 300억원을 자체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 자율편성 예산으로는 500억원이 배정됐다. 도의회가 예산 일부를 자율 편성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강원도



道花 : 철쭉
道木 : 잣나무
도청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도지사 : 최문순(崔文洵)

道鳥 : 두루미
캐릭터 : 반비

개관

연혁 상고시대에는 예국(濊國)과 맥국(貊國)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전해왔다. 8세기경 궁예의 도읍지로 철원이 선택됐고, 고려 성종 14년(995년)에 지방행정구역을 10도로 분할하면서 삭방도(朔方道)로 설치됐다. 그 후 명주도, 강릉도, 강릉사방도, 교주(交州)강릉도로 부르다 조선 태조 4년(1395년)에 강원도라 칭했다.

1986년 10월 1일 삼척읍이 시로 승격, 삼척시로 분리 증설됐고, 1989년 1월 1일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개칭된 데 이어 1992년 2월 1일 춘성군이 춘천군으로 개칭됐다.

1995년 1월 1일 춘천시와 춘천군, 원주시와 원주군, 강릉시와 명주군, 삼척시와 삼척군이 통합됐다. 1998년 5천 명 미만 과소동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해 39개 동이 통·폐합됐다.

통합시 출범 이후 원주시가 2007년 10월 15일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는 인구 30만 명 안팎의 도시로 강원도 내 3대 중핵도시를 형성, 발전기틀을 다지게 됐다.

면적·행정구역 총면적은 2만569km²이며, 이 가운데 휴전선 이남이 82%인 1만6천873.50km²로 남한면적 10만139.88km²의 16.8%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으로, 전체 면적의 82%인 1만3천795km²가 임야이며, 농경지는 7.4%에 해당하는 1천120km², 기타 10.6%로 구성되어 있다.

경지면적은 밭 6만8천756ha, 논 3만9천972ha로서 논밭의 비율은 논이 36.8%, 밭이 63.2%이며 농가 호당 면적은 1.56ha이다.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중앙부 동쪽의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크게 영서와 영동으로 구분되며, 동서로 약 150km, 남북으로 약 243km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402km이다.

행정구역은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1994년 8월 3일 공포)로 7시, 11군으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187